



1 면 에서 계 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리설주녀사께서는 자에서 내린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테스동지와 리스 쿠에스타 베라씨녀사의 손을 뜨겁게 잡으시고 서로의 마음속에 두터이 쌓인 정을 더듬으시며 인사를 나누시었다.

이어 비행장에서는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테스동지를 환송하는 의식이 진행되었다.

우리 나라 애국가와 쿠바공화국 국가가 추악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테스동지와 함께 조선인민군 영예위병대를 사열하시었다.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테스동지와 리스 쿠에스타 베라씨녀사에게 녀성근로자들이 향기로운 꽃다발을 드리었다.

두 나라 지도자내외분들께서는 각각 쿠바공화국 대표단 성원들과 환송나온 우리측 당과 국가, 군대의 간부들과 작별인사를 나누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2박3일간의 결지 않은 체류기간이었지만 뜨겁고 진실한 정을 맺고 더욱 가까워진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테스동지와 작별의 순간을 못내 아쉬워하시면서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겠다고,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며 사업에서 계속 성과를 이룩하기 바란다고,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언제나 쿠바인민과 당신결에는 자신과 우리 당과 인민이 함께 있을것이라고 따듯이

말씀하시며 귀로의 안녕을 축원하시었다.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테스동지는 최상의 특전과 극진한 환대를 받은 이번 평양방문을 잊을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들을 위해 온갖 성의를 다하고 진심으로 열렬히 환영해준 존경하는 김정운동지와 조선인민의 뜨거운 형제적우의와 친선의 정을 심장에 안고 간다고 말하였다.

두 나라 지도자들께서는 사회주의기치를 함께 추켜 든 이 손을 절대 놓지 말고 두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곳곳이 전진시켜나갈것을 약속하시며 작별의 굳은 악수를 나누시고 뜨겁게 포옹하시었다.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테스동지와 리스 쿠에스타 베라씨녀사는 수도시민들에게 따듯한 인사를 보내며 비행기에 올랐다.

쿠바공화국대표단을 태운 비행기는 오전 11시 20분 평양국제비행장을 출발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리설주녀사와 함께 형제적쿠바인민에게 보내는 진실하고 뜨거운 마음을 담아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내외분을 태운 비행기를 향하여 오래도록 손저어주시었다.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테스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선과 쿠바사이에 맺어진 형제적이며 친동적인 친선협조관계를 세기와 세대를 이어 변함없이 계승발전시키며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공동의 위업을 위해 투쟁하는 두 당, 두 나라 인민의 전투적단결을 굳건히 다져나가는데서 역사적분수령으로 된다.

본사정치보도반